

Global Economy

美 잭슨홀 심포지엄 리뷰

Economist 김연진_02)368-6186_yjk130@eugenefn.com

Strategist 허재환_02)368-6176_jaehwan.huh@eugenefn.com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 → “올해 테이퍼링 시작 적절” 재확인

8월 27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정책 발표는 없었다. 7월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 (most)의 의원들이 동의한 내용을 파월 의장의 목소리로 공식화하는 이벤트였다.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파월 의장은 “7월 FOMC에서 대부분의 위원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예상대로 전반적으로 회복된다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물가는 테이퍼링 조건 만족

파월 의장은 물가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했다. 물가 전망을 광범위한 물가상승 압력, 최근 물가상승 품목, 임금,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압력과 같이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서 깊이 있게 판단했다.

핵심은 ① 테이퍼링 조건인 “상당한 추가 진전(substantial further progress)”이 물가측면에서 충족한다고 언급한 점과 ② 물가상승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인 평균 2%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개인소비지출(PCE)물가는 3개월 연속 4%를 상회하고 근원 PCE 물가도 4개월 연속 3%를 상회해 목표인 2%를 넘어섰다. 그러나 파월의장은 대체적으로 현재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1950년대 경험상 일시적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해서 안되며 물가상승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는 1년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는 고용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나타나도 고용 회복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 전망, 긍정적

파월 의장은 최근 고용시장 전망이 개선됐으며 완전고용은 아직 멀지만 회복 중이라고 판단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단기” 리스크로 간주하고 백신접종률 상승, 학교 개학, 추가 실업보험 지급 종료 등 구직활동을 막는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고용시장 전망이 좋다고 발언했다. 9월 3일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취업자가 70만명 이상 증가하는지에 따라 테이퍼링 시기가 구체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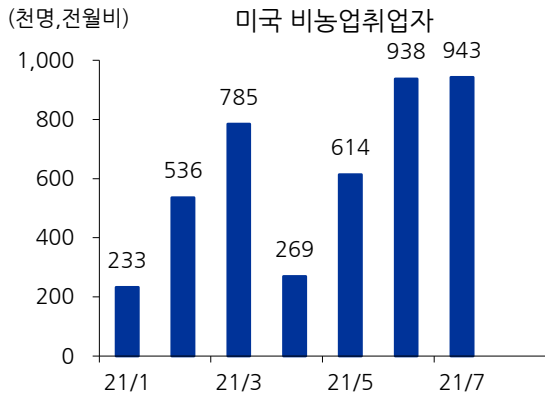
조기 테이퍼링 우려 진정

올해 FOMC 회의는 9월 21-22일, 11월 2-3일, 12월 14-15일 총 3번이 남았다. 파월 의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를 살펴보겠다고 6차례 언급했다. 9월 FOMC에서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지, 고용 회복이 지속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11월 테이퍼링 선언, 12월 1월 시작 전망을 유지한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진정됨에 따라 주가 상승세 지속, 달러 상승세 둔화가 예상된다.

Macro Economy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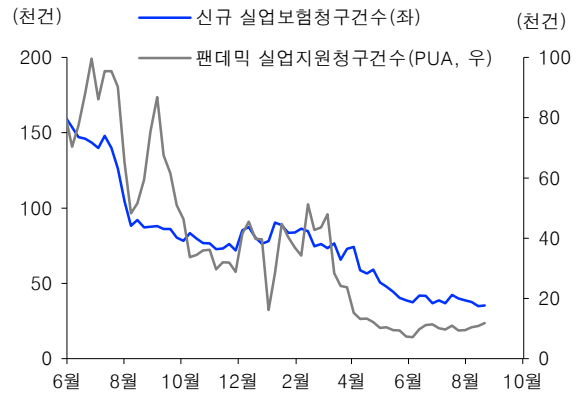
- 파월 의장, 경제 회복 지속시 올해 테이퍼링 시작 적절 재확인
- 물가는 일시적 압력이 우세하다고 판단되나 테이퍼링 조건 만족
- 고용의 아직까지 완전 회복과 거리가 있으나 최근 전망이 개선됨
- 11월 테이퍼링 선언, 12-1월 시작 전망 유지. 그 전까지는 경제 회복 및 자산매입 지속으로 주가에 긍정적, 달러에는 상승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

도표1. 미국 취업자 증가, 2개월 연속 90만명 상회



자료: BEC, 유진투자증권

도표2. 미국 신규실업청구건수, 4주 연속 30만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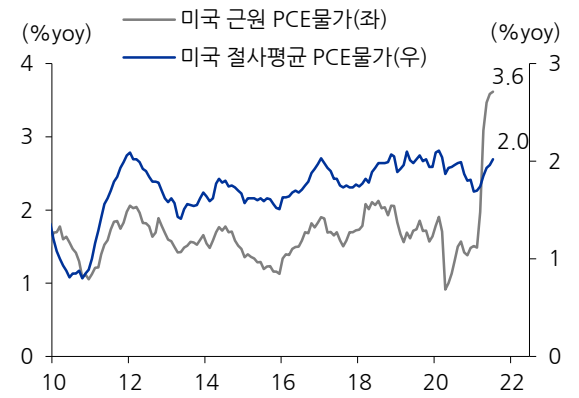
자료: BEC, 유진투자증권

도표3. 미국 PCE 물가, 2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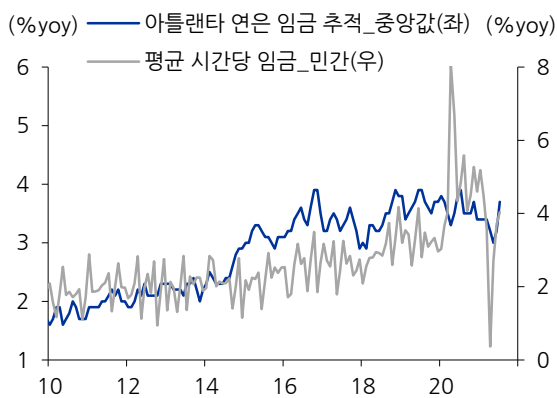
자료: BEC, 유진투자증권

도표4. 광범위한 물가상승 압력은 완만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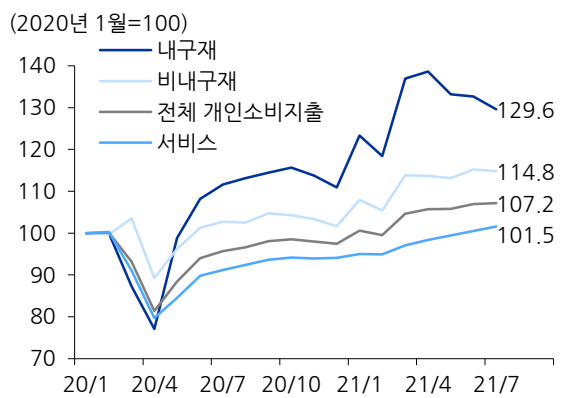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도표5. 미국 임금상승세는 안정적



자료: BEC, 유진투자증권

도표6. 미국 소비, 상품은 둔화, 서비스업은 증가



자료: BEC,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2%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8%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6.30 기준)